

광주 '자전거 도로' 시설은 엉망 홍보만 요란

자전거 이용자 목숨 걸고 달린다

전남대 교수 자전거 퇴근길 통학버스에 치여 숨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고 유가, 경기 불황, 웰빙 트렌드가 맞물 리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 등 이용 활 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출·퇴근 또는 업무용 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수 만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내건 채 차 도위를 달려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 돼 있는 형편이다.
지난 10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남대 치과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백정선 (50) 전남대 교수(수학과)가 어린이 집 통학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 졌다.
백 교수는 이날 강의를 마친 뒤 자 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방향 에서 뒤따르던 한모(58·서구 화정동)씨의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갑자기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퇴근길에 피곤 해서 깜빡 졸았는데, 진로가 2차선에 서 3차선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한씨가 졸음운전을 하 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한씨를 교 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하면 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 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298건(사망자 4명, 부상자 320 명)에 달한다.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151개 노선에 193km, 2010년까지 214개 노선, 381

km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 직 개설률이 74.4%에 머물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 24개 노선 32.28km, 서구 24개 노선 42.84km, 남구 20개 노선 32.88km, 북구 54개 노선 102.19 km, 광산구 29개 노선 83.37km다.
문제는 광주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려면 많은 지역에서 차도 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찔한 장 면이 자주 벌어진다는 점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아직까지 형식적이

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얽히는 등 위험천만하다. 또 자전거와 인도 겸용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가게 앞에 각종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광주 YMCA 빛고을바이크사업단 박승환 정책팀장은 “최근 광주지역 자전거도로 100여 곳의 실태조사 결과 전용도로 간 연결이 미흡해 차도 를 이용해야 하는 곳이 많았다”며 “자전거 교통분담률·이용실태·효과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2년 자전거 출퇴근 '천재 수학자'



故 백정선 전남대 교수
자전거로 퇴근중 교통사고로 숨진 백정선 전남대 교수는 시대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뚜렷한 철학을 가진 천재 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동남 자전거로 출퇴근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는 아예 따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주위의 권유에 따라 최근에서야 마련했다. 그는 또 수학자로서 드물게 해외 유학을 거부하고 국내에서만 학위를 받은 순수 국내파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 진학한 아들과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한 딸에게도 사교육을 시

백 교수는 지난 1987년 전남대 교수로 임용된 뒤 항상 연구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대신 22년

키지 않는 등 투철한 교육관을 지켜왔다. 그는 오직 연구에만 몰두 했왔으며, 영 재교육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교육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학창시절 때 못 푸는 수학 문제가 없을 정도로서 함께 공부했던 동급생이나 선·후배들은 그를 '수학 천재' '백 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 전국 최고

87웨클 기록... 갈수록 심해져

광주공항이 전국 13개 공항 중에서 가장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은 2년 연속 공항소음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공항 등 13개 공항 89개 지점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광주공항의 소음은 87웨클(WECP-NL)로 가장 높았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채택한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소음한도는 75웨클이다.
2006년 84웨클을 기록했던 광주공항은 2007년 86웨클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7웨클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소음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소음을 측정할 결과 목포와 나주가 64dB로 최고(낮)를 기록했지만 환경기준치인 65dB를 넘진 않았다.
여수는 68dB(낮), 65dB(밤)로 일반 공업지역 전국 24개 도시 중 주·야 모두 최고를 기록했지만 기준치(낮·70dB, 밤·65dB)를 초과하진 않았다.
도로운 공업지역의 경우 나주는 72dB(낮)을 기록해 기준치(75dB)보다 낮았지만 전국 27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소음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전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 등 33개 도시 301개 지역 1천486개 지점에 대해 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무안군 일로농협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광주지역 목포지청은 11일 공사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무안군 일로농협 조합장 이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통센터 건립 등 일로농협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목포 주간지 기자가 성폭행
목포경찰은 11일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한 전남지역 주간지 '전남신문' 기자 임모(41)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30분께 목포시 J고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A(여·25)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휴대전화를 빼앗고 "흥기를 가지고 있다"며 위협해 골목길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수사비 부적절 사용 의혹 광주경찰청 경정 사표

경찰 7명도 전출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수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청 감사를 받은 보안수사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안수사대장 A경정은 최근 수사비 집행과정에서 잘못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른 직부로 발령이 나와 사표를 제출했다. 정년은 6개월 남겨둔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청 보안국은 광주 보안수사대에 대한 투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부서 내에서 수사비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일부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지휘책임을 물어 보안수사대장을 교체하고 직원 16명 중 10년 이상 근무한 7명도 일선경찰서로 전출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징계 또는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해고노동자 고공 시위
1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20여m 높이의 교통관제용 CCTV 첩탈에 올라간 (주)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이모(37)씨 등 2명이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첩탈 아래 광장에서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회원 100여명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축사 규제역 방역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 직원들이 11일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 축산농가에서 규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시연회를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Republic of Korea NO.1 Remarriage Specialist Company) featuring a coup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S.B.Y. (주)행복출발.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aysia) beauty salon, listing services like haircuts, styling, and skin car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62) 671-1199.